

웰다잉을 위한 교육이 노인복지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Impact of Education for Welldying on Workers Related to Senior Welfare

정의정, 변상해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Eui-Jung Jung(nayagongju@hanmail.net), Sang-Hae Byun(jm9004@suv.ac.kr)

요약

본 연구는 노인복지 종사자 중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웰다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요양보호사의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죽음과 죽음과정, 죽음관련요인을 이해하여 노인의 편안한 임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지역에 소재한 J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총 9회기가 진행되었고, 수집된 교육 전후 요양보호사들의 변화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죽음불안이 감소하였다.

둘째,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죽음수용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웰다잉을 통한 교육이 노인복지종사자 중 요양보호사의 죽음불안 감소와 죽음수용정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웰다잉 | 죽음불안 | 죽음수용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education for welldying on the death anxiety and death reception of care workers who were most closely linked to death among workers who were engaged in senior welfare. It's basically meant to let care workers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death, death process and death-related factors to help elderly people close their life in a comfortable manner.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e care workers who worked in J nursing home in the region of Gwangju. They received education in nine sessions, once a week,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package 15.0.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test and ANOVA.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welldying program participants showed a decrease in death anxiety.

Second, the welldying program participants became more receptive to death.

■ **keyword** : | Well-dying | Death Anxiety | Receptive to Death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웰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웰다잉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죽음이 삶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삶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하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며 죽음은 결국 삶의 마지막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1].

1959년 Feifel을 시작으로 서구에서는 이미 죽음은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죽음교육이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이후 죽음학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실시되어 건강한 사람은 물론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의 죽음준비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미비하다. 죽음준비교육은 단순히 죽음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전 생애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하여 장기요양대상자에게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종사자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 및 이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이므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며[17], 질병의 불편함을 가진 상황에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2].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돌봄을 제공하던 노인들의 죽음을 경험해야함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가 있고, 이는 돌봄의 대상인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관련 종사자들에 의뢰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임종에 다다른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 물어올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보고된 바 있고[18], Demmer[19], 이하영의[20] 연구에서도 임종관련 사회복지사들의 죽음불안이 소진

빈도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노인의 편안한 임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나 관련선행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 종사자 중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웰다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요양보호사의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인이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기 위해 죽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웰다잉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준비라는 용어를 웰다잉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요양보호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하여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실기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3].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현황은 2011년 4월말 현재 배출된 인력은 1,006,897명이고, 종사인력은 243,745명이다[4].

2. 죽음불안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이며 부정적인 삶의 부분이다. 죽음불안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오다가 Collett와 Lester이 만든 FODS(Fear Of Death Scale)에서 4가지 영역(자신의 죽음공포, 타인죽음 공포,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 공포, 타인이 죽어가는 과정공포)의 복합적 차원을 측정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

3. 죽음에 대한 수용

Wong, Reker와 Gresser가 개발한 DAPR(Death Attitude Profile-Revised)는 죽음수용을 중립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접근적 수용으로 구분하였다[6]. 중립적 수용이란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끝이나 종결로써 삶이란 죽음을 향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인식을 포함하며, 접근적 수용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것으로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탈출적 수용이란 죽음으로써 고통스러운 삶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고 탈출구이다[7][8]. 따라서 죽음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종교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4. 웰다잉을 위한 교육

웰다잉을 위한 교육은 선행연구들에서 죽음준비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죽음준비상담교육, 임종교육 등의 용어도 가끔 사용되고 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죽음준비라는 단어가 아닌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죽음준비교육이란 죽음, 죽음의 과정, 사별 등 죽음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9].

5. 선행연구

웰다잉 교육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의 형식이 많으며, 대부분 노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노인이 아닌 노인을 케어하며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처음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던 서혜경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죽음준비교육이 아닌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죽음불안과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였다[21]. 이이정은 2회에 걸친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해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도출했으며, 건강, 신체적 특성, 성격 및 정서적

특성, 죽음준비와 죽음불안 정도, 학습관, 선수학습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등이 죽음준비교육 실행에 있어 영향요인임을 밝혔다[10].

또한 현은민은 D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6회기로 구성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여 참여노인들이 죽음불안이 감소하고 삶의 의미수준이 높아졌다고 밝히면서 추후 죽음준비교육은 양적분석접근보다 질적접근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1].

박지은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의 세요소로 구분한 Corr의 질표에 따라 구성된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불안이 감소하고, 인지적 수용정도도 증가하였으며, 긍정적 행동반응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2].

양강수는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연령층별 죽음준비교육의 욕구 및 필요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을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청장년층, 중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13].

6. 연구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웰다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죽음불안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웰다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죽음수용이 증가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전남·전북지역에 소재하는 요양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J요양원 근무하는 23명의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3명의 요양보호사들을 13명은 실험집단으로 10명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주 1회씩 총 9회기의 교

육을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죽음경험여부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나타나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영역	n	%
연령	50대미만	3	23.0
	50대	8	60.1
	60대	2	16.9
학력	초졸	3	23.0
	중고졸	9	69.2
	대졸	1	7.8
종교	기독교	6	46.1
	불교	1	7.8
	천주교	4	30.7
	기타	2	15.4
죽음경험	유	9	69.2
	무	4	30.7

표본으로 선택된 J요양원이 여성노인만 입소하는 기관인 까닭에 근무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100%였으며, 연령은 50대가(60.1%)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중고졸이(69.2%) 가장 많았고, 종교는 기독교가(46.1%)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복지 종사자 중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웰다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요양보호사의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파악하여 노인이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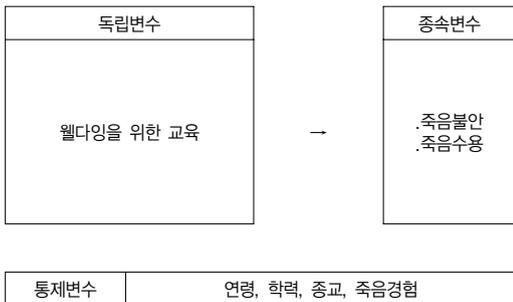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도구

3.1 죽음불안

Collett와 Lester이 만든 FODS(Fear Of Death Scale)를 서혜경이 번안하고 오미나가 수정보완한 후 이영순 등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4-1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은것을 의미한다.

표 2. 죽음불안 하위영역별 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
자신의 죽음공포	5	.77
타인의 죽음공포	5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공포	5	
타인인 죽어가는 과정 공포	5	

3.2 죽음에 대한 수용

Wong, Reker와 Gresser(1994)가 개발한 DAPR(Death Attitude Profile-Revised)를 장휘숙과 최영임(2008)이 번안하고 5개영역으로 구성된 원척도를 3개 영역으로 축약·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 중립적 수용의 3개 영역, 총 14개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리커트척도이다.

표 3. 죽음수용 하위영역별 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
접근적 수용	8	.81
탈출적 수용	3	
중립적 수용	3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웰다잉 프로그램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 종사자 중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에게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웰다잉

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요양보호사의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1. 프로그램구성

각 회기별 프로그램은 초기단계, 개입단계, 종결 단계로 진행하였다.

- ㉠ 사전검사 - 죽음불안, 죽음수용
- ㉡ 초기단계(1 session) - 친밀감 형성기
 - .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자의 관계 증진 및 참여 욕구 증진
 - . 연구자와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 ㉢ 개입단계(2 session - 7 session) - 경험 공유기
 - . 프로그램 참여 적극 유도
 - .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집중 실시
- ㉣ 종결단계(8 session)
 - .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느낌 나누기
 - .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동기 유도
 - . 사후 검사 - 죽음불안, 죽음수용

2. 프로그램 내용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 1회 총 9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회기별 구성

회기	회기별 주제	내용
사전	죽음불안, 죽음수용	사전 검사
1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프로그램 소개, ice break, 별칭짓기
2	인생 정리하기	생애사 기록표 작성, 과거를 통한 감정파악, 나누기
3		만다라, 나누기
4	죽음의 의미 탐색하기	삶의 우선순위(버려야 할 것과 챙겨야 할 것), 나누기
5	평화로운 죽음을 위한 준비하기	영상시청, 나누기
6	내 삶의 흔적	가장 행복했던 시절과 힘들었던 시절
7	내 삶의 흔적	작별편지, 유언장 작성, 나누기
8	존엄한 죽음	존엄사, 연명치료에 대해 나누기
9	장례식 기획하기	장례식 이벤트 기획하기, 나누기
사후	죽음불안, 죽음수용	사후검사

V. 연구결과

1.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검증을 위해 교육실시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검증을 실시하였다. 동질성검증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프로그램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생변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영역	G	N	M	SD
죽음불안	E	13	4.70	2.43
	C	10	5.45	1.98
죽음수용	E	13	56.93	13.90
	C	10	66.72	15.02

*** p<.001

2. 죽음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죽음불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죽음불안

		M	SD	T	P
E Group	사전	4.70	2.43	-2.352	.020
	사후	4.20	2.42		
C Group	사전	5.45	1.98		
	사후	6.46	2.74		

*** p<.00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집단의 경우 죽음불안이 감소하였고, 통제집단은 죽음불안은 증가하였는데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웰다잉을 위한 교육의 죽음불안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3. 죽음수용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수용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죽음수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죽음수용

		M	SD	T	P
E Group	사전	56.93	13.90	.187	.043
	사후	65.70	6.49		
C Group	사전	66.72	15.02		
	사후	66.54	15.247		

*** p<.00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집단의 경우 죽음수용정도가 향상되었고, 또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웰다잉을 위한 교육의 죽음수용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4. 죽음불안과 죽음수용

실험집단의 죽음불안과 죽음수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죽음불안과 죽음수용

	접근적수용	중립적수용	탈출적 수용
자신죽음불안	.193	-.181*	.152
자신죽음과정불안	.083	-.051	.112
타인죽음불안	.131	-.049	+.154*
타인죽음과정불안	.093	-.027	.096

** p<.0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은 중립적 죽음수용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증가할수록 중립적 죽음수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은 탈출적 죽음수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증가할수록 탈출적 죽음수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의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VI.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노인복지 종사자 중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웰다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요양보호사의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죽음을 이해하여 노인의 편안한 임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에 소재한 J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총 9회기가 진행되었고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죽음불안이 감소하였고, 통제집단은 죽음불안은 증가하였는데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웰다잉을 위한 교육의 죽음불안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직접적으로 죽음불안에 대해 다루지는 않았으나 죽음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를 다른 김미애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21].

둘째,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죽음수용정도가 향상되었고, 또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웰다잉을 위한 교육의 죽음수용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죽음준비 또는 웰다잉에 관한 교육이 대상자들의 죽음불안이나 죽음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다룬 선행연구가 너무도 미약하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노인의 임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기존의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관점에서 벗어나 노인을 가장 최근접에서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웰다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향을 살펴 보는데 실천적 함의를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단일시설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

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요양보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성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첫째,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케어하는 직업의 특성상 죽음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과정, 죽음관련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웰다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보호사들이 죽음을 이해하여 노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웰다잉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장신화, *성인의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김미애, *요양보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죽음준비교육 요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 고병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4] 이연순,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5] 어단연,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부산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6] P. P. Wong, G. T. Reker, and G. gesser.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Death anxiety handbook: Rea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1994.

[7] 장휘숙, 최영인,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3-40, 2008.

[8] 한보영, *일지역 광산근로자와 거주민의 죽음불안과 죽음수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9] 김유숙, *노인성별에 따른 죽음준비교육 요구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0] 이이정,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1] 현은민, "노인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2호, pp.31-56, 2005.

[12] 박지은,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정서인지행동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3] 양강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4] L. J. Collett and D. Lester, "The fear of death and fear of dying," *The Journal Psychology*, Vol.43, 1969.

[15] 서혜경, "죽음을 준비하는 건강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제언", *한국노년학*, Vol.24, No.1, 1992.

[16] 이영순,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7] 김선희, 남희은, 박소진,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82-291, 2012.

[18] 운영주, *호스피스요원의 죽음과 소진과의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9] C. Demmer, "AIDS Attitudes and Attitudes Toward Caring For DyingPatients," *DeathStudies*, 제23권, 제5호, pp.433-442, 1999.

[20] 이하영, *호스피스완화제도에 따른 사회사업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21] 서혜경, “한미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노년학, 제7권, pp.39-59, 1988.

저 자 소 개

정 의 정(Eui-Jung Jung)

정회원



▪ 2008년 ~ 현재 : 서울벤처 대학
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겸
임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여가

변 상 해(Sang-Hae Byun)

종신회원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사
복지상담학과장

<관심분야> : 사회복지, 상담